



2학기 성적 열람 및 공시(정정)기간 공고

성적 입력 기간 : 12. 15(화) ~ 12. 27(일)
성적 열람 기간 : 1차 12. 15(화) ~ 12. 23(수)
(강의평가 실시자) 2차 12. 29(화) ~ 12. 30(수)
성적 공시(정정)기간 : 2015. 12. 31(목) ~ 2016. 1. 5(화)



대학주보로 본 2015, 올 한해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관련기사 4~5면

Newsmaker

후마니타스 교육자 협의회 출범,
대표 김민철(후마니타스칼리지) 인터뷰



“강사 고용안정과 ‘후마 발전’ 위해 책임 다할 것”

김종완 기자 as03400@khu.ac.kr

지난 11월 20일 협의회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의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협의회의 대표 김민철 교수(후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지난해부터 양캠 후마 내 교강사의 목소리를 대변할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마땅한 계기가 없어 시간만 흘러가던 차에, 이번에 국제캠퍸스 객원교수들이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를 계기로 출범을 선언한 것이다.”

“대학이 취업사관학교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우리학교의 후마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반기를 든 커다란 실험이었다. 대학은 학문을 우선해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교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선언이다. 타 대학에서의 관심과 학생의 만족을 모두 충족시킨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개편을 앞둔 지금, 초심을 지키기 위해 교수들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의견 충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논의와 합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다는 김 교수. 교양강의 증가와, 강의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학생회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도 충분히 있다고 한다.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인간의 가치탐색 제4장의 제목이다. ‘기난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고통히 나누어지지 못한 것을 걱정하라’라는 뜻이다. 교수들이 실천하지 않아서야 되겠나. 시간강사의 고통을 나누려 노력할 것이다”

제3의 중핵교과 ‘과학’ 분야 추가된다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육과정 개편 포함한 4가지 발전방안 계획 추진

2016 교양교육 개편

김도엽 기자 wogmd567@khu.ac.kr

지난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가 신설된 후 처음으로 교육과정 개편을 포함한 4가지 발전방안 계획이 추진된다. 4가지 발전방안에는 교내·외 석학과 우수 교원 영입, 교양교육 및 실천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개편 배경에는 기존 후마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한 타 학교와 차별화된 교양 교육의 모범을 재학립하고 새로운 운동의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

우선 교육과정이 개편된다. 개편



지난 1일 후마 유정완 학장이 우리신문을 만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배경에는 이공계 학생들이 전공과 목과 더불어 들어야 할 교양강좌가 35학점으로 너무 많다는 지적과 영어 과목에 치중돼 다양한 국제화 교육을 추구하는 후마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관련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8

월 양 캠퍼스 후마 학장을 포함한 ‘후마 운영개선 TF’는 후마 재도약과 상징성 제고를 위해 5차례 회의를 가졌고, 현재 교과 과정 개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편 계획에 대한 최종 보고도 끝난 상황이다.

교育과정 개편에서 가장 크게 바

뀌는 부분은 중핵교과다. 기존 ‘인간의 가치 탐색’, ‘우리가 사는 세계’ 2과목으로 구성된 중핵교과는, 과학을 주제로 제 3의 중핵교과가 신설돼 3과목으로 바뀐다. 기초교과인 영어와 글쓰기도 개편된다. 영어1, 2로 구분되던 기존 수업을 영어로 통합하고 영어2는 자유 이수에 포함돼 심화과정 과목으로 바뀐다. 글쓰기1, 2 과목은 모두 25명 정원을 유지하는 것에서 글쓰기1 20명, 글쓰기2 30명으로 바뀐다. 또한 배분이수교과 7개 영역에서 5과목을 선택해 15학점을 듣는 것에서 4과목 선택 12학점을 이수로 바뀐다. 총 이수학점은 35학점에서 33학점으로 개편된다.

▶3면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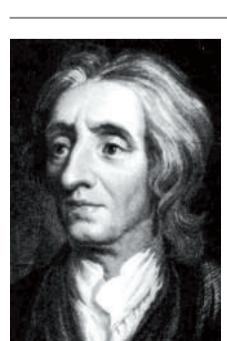
관용, 상호 호혜적 이타심

후마 - 대학주보 공동기획 인류문명을 만든 핵심개념⑧

김영진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나는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겠다.” 볼테르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이 말은 근거가 분명하지 않지만 ‘관용’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이다. 한마디로 관용은 주체가 타자에게 베푸는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그 런다면 우리는 타자를 어느 수준만

큼 인내하고 견디며 용인해야 하는가.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가. 바로 여기서 관용의 모순이 발생한다. 약자를 노



볼테르는 합리적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을 제기했다.

예로 예속시키도록 용인하는 무제한적 관용은 구속을 초래한다는 논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관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그 한계의 설정은 어디까지인가?

중세 초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사회적 덕목으로서의 ‘용인’을 말했고, 12~13세기에 이르러 관용은 왕이나 통치자가 집단과 개인에게 너그러운 처분을 베푸는 ‘은총, 시혜’라는 특권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초기의 ‘관용’ 개념은 공존 내지 국가통합이라는 정치적인 이유가 다분히 있었다.

‘관용’이라는 용어 자체는 자유나 평등 개념처럼 근대에 발명된 것이다. 17세기 구교와 신교의 치열한 종교 전쟁 후 낭트 칙령을 통한 종교적 관용이 그 예다.

그리고 영국의 왕위 계승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일 때, 로크는 『관용에 관한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하였다. 그는 정교분리의 원칙뿐 아니라 합리적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관용을 제기했다. 그의 사상은 또한 밀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이번 호가 2015학년도 2학기 종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총장과의 대화’가 지난 3일 서울 캠퍼스 본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평교수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야기는 대학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선

사설

대학은 우리학교의 미래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학문단위 재조정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됐다. 목전의 PRIME사업은 차치하더라도 감소추세에 놓인 학령인구 현황이나 2018년의 입시제도 개편 같은 외적 요인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학교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학문단위 재조정은 필수적인 초석이기 때문이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문·이과의 구분이 사라지고 학문단위가 통합되는 2018년 이후로는 모든 예비 신입생들이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진로를 고민하게 된다. 바야흐로 진짜배기 ‘학문간 융합의 시대’가 개막되는 셈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학교의 81개 학문단위가 일사불란한 역할 분담과 학문간 교류시스템 마련을 통해 융합 학문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번에 우리신문이 지령 1600호 특집기획으로 준비했던 ‘하나의 경희’ 시리즈에 대해 나타난 구성원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는 양 캠퍼스에서 적어도 십 수 년 전부터 이어져오던 고착화된 편견이 여러 지점에서 관측된다. ‘하나의 캠퍼스’에 대한 양 캠퍼스 구성원 간의 인식 차이가 경희의 ‘진정한 하나’를 번번이 가로막아온 지난 날을 상기해볼 때, 수많은 시일이 흐른 오늘날에도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을 그 잠재적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통시적으로 돌아보면 유사학과·대외 인식 등 소위 본·분교 문제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동안 대학본부는 이 사안을 제대로 직면한 적이 없었다. 자꾸만 ‘현상’으로 불거져 나오는 이 문제를 대학본부 측은 언제나 ‘캠퍼스 별 운영 원칙’을 되풀이해서 설명하거나, ‘학생 간의 논의’에 맡기거나, ‘캠퍼스 명칭변경’으로 우회하면서 유야무야 넘겨왔다. 힘들고 부담스러운 이슈라는 이유로 대학본부가 문제를 외면하며 구성원과 소통을 포기한 사이에, 해당 문제는 자연 치유되기는커녕 반복·누적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학문단위 재조정은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됐다. ‘학문단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대학본부의 권리이겠지만, 그 정책의 상세와 각론은 대학과 구성원이 긴밀히 협의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일 테다. 우려스러운 점은 바로 이 지점이다. 대학은 그동안 우리학교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담론에 대해 구성원과 제대로 된 소통의 시간을 가졌던 경험이 부족하다. 대학이 ‘구성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감 자체에 짓눌려있는 사이에 구성원 사이에선 편견과 오해가 깊이 쌓여온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학문단위 재조정 문제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보를 밟을 가능성이 높후하다.

민주주의는 ‘불편한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데서 출발한다.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꾸준히 대화하고 토론하여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다. 구성원 간 소통 여하에 따라, 학문단위 재조정은 우리학교 미래를 담보하며 ‘진정한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 구성원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내몰 수 있는 벼랑이 될 수도 있다. 대학은 어떤 자세와 모습으로 우리학교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정경대학 선거세칙 날치기 통과 논란

미디어 여론동향 2015. 12. 1 ~ 12. 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SPACE21 사업 소통위원회(소통위) 2차 회의가 지난 2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체 상환 위한 사업 꾸준한 수익낼지 우려”…재정경영원, “수익 창출 안정적 임을 확신”/대학주보 온라인, 2015.12.3)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SPACE21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었다. 우리학교는 최근 SPACE21 사업 진행을 위한 기체를 교육부에 승인받았다. 재정경영원 측은 “내년 분의 기체 360억 원을 승인받은 상태”라며 “확실한 사항은 아니나 제 1금융권에 약 3%의 이율로 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율이 확정될 경우 우리학교는 3년간 매년 15억 원, 그 후 17년은 매년 약 37



이주의 주제 - 새로운 학생회비 운영 방안 필요

기름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회비 꼭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해 봤을 것이다. 이는 각 학생회가 학생회비는 자율납부로 모집된다는 것을 고지서에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혼란이다. 이 불친절함은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오류 중 하나다. 특히 학생회비를 둘러싼 문제는 학생회에 대한 불신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자치를 크게 위협한다. 더군다나 학생회비는 학생자치를 움직이는 동력이다. 기름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은 ‘학우참여형 회계감사’를 신청한 18개 자치기구의 학생회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학생회 회계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감사였으며 우려한 대로 허술한 관리가 드러났다. 다만 자금 관리자들의 전문성 부족에서 온 오류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총학의 ‘회계 가이드’ 계획은 비전문가의 회계결산을 보완해 줄 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회비 운영에는 결산안 감사와 자금 관리자 교육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현재 단과대학 학생회는 학생회비 예산책정 근거를 학생들에게 공시할 규정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지출을 요구하기 전,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히 옳다. 학생회비 고지 이전에, 구체화된 사업계획과 추정비용을 밝혀 납부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 공개해야 한다. 소통은 학생회비 납부율을 상승 시킬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흥보하고 평가받게 할 것이다. 목적을 밝히지 않고 고지서만을 보낸다면, 누가 내어주고 싶겠는가?

또한 각 단과대학의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시방법이 모두 제각각인데다 일부 단과대학에서는 ‘보고 싶은 학생은 학생회실로 직접 찾아오라’는 입장인 탓에, 사실상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산안을 확인하기 힘들다. 이는 해당 학생회가 학생회비 운영을 학생자치의 과정이 아닌, 자금을 충당하고 소비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통’의 애다. 게다가 학생복지 사업비용에는 특강강사 초청비용, 각종 대여비 등 적정한 액수의 비용인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모든 학생회가 학기말에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동일한 플랫폼에 공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같은 공간에 공시한다면 학생들이 이를 서로 비교해 적정 액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우리학교 학생회비는 학기당 9,500원으로 타 대와 비슷한 수준인데 비해, 납부율은 약 75% 수준으로 2015년 1학기 기준 연세대 28.6%, 한양대 36.6% 등 타대의 납부율보다 월등히 높다. 하나 위 납부율은 최근 5년 간 꾸준히 하락해 왔다. 학생회비 납부율의 변화가 가진 의미를 학생회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비교적 높았던 우리학교 학생회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내년 다시 논의될 학생회비 회계의 새 모습이 성공적으로 우리학교 학생자치에 정착하고, 이를 통해 학생회비를 둘러싼 술한 논란을 일부나마 해소시켜주길 바란다.

여 6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기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의약품이나 경희제약, 교육 사업을 통해 연간 상환금액 40억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주거래은행 변경과 마산 부지 개발 안건도 쟁점이었다. 대학본부 측은 현재 우리학교의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과 SPACE21 사업 재원 조달을 위한 협의가 2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타 은행과의 협상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변경할 계획이다. 마산 부지 개발에 대해서 재정경영원 측은 “현재 개발서를 토대로 수익금을 확대할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는 훨체어를 탄 학생에게 엘리베이터를 양보하지 않은 학생들이 부끄럽다는 글(#경희숲_11842, 2015.12.2)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글쓴이는 ‘청운관 수업을 가던 중 엘리베이터가 오고 있길래 줄을 섰다. 맨 앞 줄에는 훨체어를 탄 장애학생과 도우미학생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만원이었다. 그런데 훨체어를 탄 학생을 보고 한 명 빼고는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이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면 수업에 가기 어

려운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 엘리베이터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먼저 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이 글에는 ‘좋아요’ 97개가 달렸다. 댓글로는 3학기 째 장애학생 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한 학생이 ‘장애학생이 자리에 비켜달라고 직접 말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도우미가 대신 말해줘야 한다. 물론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능동적인 배려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도우미 활동을 하면서 배려를 요청할 때 이를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다. 도우미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배려를 요청하라’고 적었다.

정경대학 선거에 대한 논란 글(#경희숲_11846, 2015.12.3)도 화제였다. 글쓴이는 ‘투표율이 50%를 못 넘어 기간을 연장하는데, 그걸 카카오톡으로 의결했다고 한다. 심지어 카카오톡 투표 기능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라고 적으면 인준하는 걸로 했다고 한다’며, ‘선거 세칙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는데, 재투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적었다. 198개의 ‘좋아요’를 기록한 이 글에는 ‘지난 번 부정선거에 이은 시리즈 2단인가. 이런 일을 만드는 건 정경대학 전체를 욕 먹이는 것이다. 당사자는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댓글이 달렸다.

대학주보는 ‘문제를 만드는’ 집단이 아니다

세시봉



이시온 (뉴스팀장)

여느 때처럼 대학본부 취재를 마치고 건물 밖을 나오는 길, 친분 있던 한 교직원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말을 들었다. 지난 주 발행됐던 대학주보 지령 1600 호, ‘캠퍼스 통합’ 관련 특집 기사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였다. 깊었던 대화의 요지는, 몇몇 교수님들이 기사에 대해 ‘왜 문제를 사서 만드느냐’, 대학주보 학생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허탈했지만 사실 그다지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었다. ‘괜히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는 취재과정 도중 수없이 들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듣고 들어 머릿속에 쌓일 만큼이 되자,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어졌다. “정말 저희가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돌이켜보면 대학주보는 지난 1년간 많은 ‘문제’들을 키워왔다. 학내는 작은 사회와도 같아, 수많은 갈등이 얹히고 석기되는 곳이다. 우리는 항상 그 갈등 속에서 펜대와 함께 서 있었다. ‘후마 교수 막말 발언’ 때가 그려졌고, ‘학생회 예산 공시문제’ 때가 그려졌고, 이번 ‘캠퍼스 통합’ 관련 특집이 그려졌다.

이러한 문제들이 글로 쏘아려져 세상과 마주하게 될 때마다, 내심 마음 속으로는 어떤 기대가 생긴다. 그건 가려져왔던, 혹은 기피해 왔던 ‘사실’들이 보도를 계기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점들이 그리하듯, 그 이면엔 침예한 갈등의 대립과 함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기 마련이다.

이 모든것을 ‘불편한 진실’로 호도하는

일부 세태는 현재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불편한 진실’로 호도해버리고, 그저 외면해버리는 일부 세태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들은 이번의 상황이 글로 풀어진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점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 즉, 현재 ‘있는 문제’ 조차 없던 일처럼 외면하고, 이야기되면 곤란한 화두는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는 셈이다. 이 생각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 학내 언론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조직으로 치부돼 버리고, 소속 기자들은 ‘관리가 필요한 학생’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분명 우리는 학교에 소속되어 수업을 듣는 ‘학생’이기도 하다. 하지만 펜대를 잡고,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우리는 오롯이 진실을 마주하는 ‘기자’다. 비록 학내 언론이지만, 언론을 언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그 순간 하나의 ‘백신’을 잊어버리게 된다.

문제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할자. 이를 기자탓으로 돌리지도 말자.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 공론화는 구성원 간의 현명한 의견 도출을 할 수 있는 첫단주다. 1년간 대학주보의 이야기가 불편했을 당신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물론, 내년에도 대학주보는 온 힘을 다해 진실을 직시하겠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백승철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 1면에서 이어짐

서울캠퍼스(서울캠) 후마 유정완 학장은 “중핵교과에 과학 분야가 들어가는 것은 융합교육을 강조하는 지금, 과학 과목 신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라며 “신설되는 과학중핵은 1, 2학기 모두 수강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과학분야 중핵교과, 외국어 강좌 신설로 융합교육과 국제화 강조

학생들이 과학중핵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유 학장은 “듣는 학생들이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며 “기존 재학생들도 과학중핵을 들을 수 있도록 기존 2가지 중핵교과 중 듣지 않은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중핵을 위한 교재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유 학장은 “과학중핵을 위한 PPT는 만들 어 놓은 상태이지만 이를 사용할지 외부 교재를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후마는 기준의 영어과목 위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이수 과목에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과 같이 다양한 외국어 수업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유 학장은 글쓰기 개편 배경에 대해 “글쓰기1의 취지는 토론과 다양한 글쓰기이며, 글쓰기2는 사회적 글쓰기 즉, 글쓰는 방법을 배우기 위함이다”라며 “다양한 토론이 필요한 글쓰기1을 위해 1의 정원을 감축, 상대적 토론이 적은 글쓰기2의 정원을 그만둔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단기 과제

- ① 사이버대학 학점교류 확대
- ② 독립연구 과목 신설
- ③ 서울캠 신입생세미나 실시
- ④ 자유교양학 트랙 신설

후마 측은 이번 교육과정 개편으로 재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후마 행정실 이성미 계장은 “원칙은 입학년도 기준의 교과과정을 따르다”며 “15학번까지는 개편되는 교과과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어와 같이 없어지는 과목에 대

해서는 “재학생은 내년부터 자유이수 과목으로 넘어가는 영어 심화과정을 들으면 기초교과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수학점을 채우지 않은 재학생에게는 개편되는 교과과정을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후마 측은 교양학점 축소와 더불어 후마 발전방안으로 다양한 단기 과제들을 추진한다. 현행 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를 확대해 기존 온라인 강의를 들었을 경우 기타선택 학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학기 당 최대 1과목 배분·자유이수 등 해당 영역 별 학점으로 인정해준다. 배분·자유이수교과의 다양한 교과 확대가 목적이다. 유 학장은 “온라인 강의를 배분·자유이수교과로 인정해 주면 학생들의 참여가 많이 늘어 날 것이다”라며 수강학생이 증가하면 학기 당 2과목 6학점까지 인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교양학점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단기 시행과제 추진

또한 학생 스스로 교과 개발, 수행을 권장하기 위해 독립연구 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독립연구란 학생이 교과를 직접 개발해 수행하는 것으로, 개인 혹은 그룹으로 이루어진 팀이 직접 지도교수를 섭외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과제를 수행하면 자유이수교과 3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분야는 교양, 전공, 실천, 참여, 창업 5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유 학장은 “5가지 각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해 중핵·시민교과와 내용적 결합을 생각하고 있고, 미래문명원의 GC(Global Collaborative)프로그램과도 연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독립연구 과목 개설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이며, 교수당 수강인원이 적어 책임교수 인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섭외한 교수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유 학장은 “후마 내부에 독립연구 전문 교수를 둘 것이다”라며 “교수가 거절할 수도 있지만 담당교수가 조정,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독립연구에 대한 논의는 다음 주 있을 예정이다. 유 학장은 “다음 주 교무처장과 후마 학장을 포함한 회의에서 책임교수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겠지만, 독립연구 신설에 힘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캠퍼스에서만 시행 중이었던 신입생 세미나(신세) 강의는 서울캠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6시 정규수업이 모두 끝나고 난 뒤 시작하는 신세는 기숙사 수용률이 떨어지는 서울캠에서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온 수업이다. 유 학장은 “서울캠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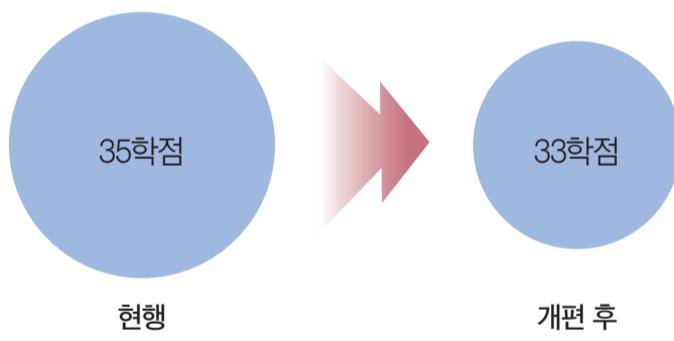
〈신 교육과정〉

종구분	해당 교과목 명	이수학점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1	인간의 가치 탐색	3학점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2	우리가 사는 세계	3학점
문명전개의 지구적 문맥3	(미정)	3학점
영어	영어	2학점
글쓰기1	글쓰기1	2학점
글쓰기2	글쓰기2	2학점
시민교육	시민교육	3학점
7개 영역	영역별 20여개	4개 영역 12학점
5개 영역	영역별 10~40여개	3학점

〈구 교육과정〉

대구분	중구분	해당 교과목 명	이수학점
중핵 교과	중핵교과	인간의 가치 탐색	3학점
		우리가 사는 세계	3학점
기초 필수	영어	영어1	2학점
		영어2	2학점
	글쓰기1	글쓰기1	2학점
	글쓰기2	글쓰기2	2학점
시민교과	시민교육	시민교육	3학점
		7개 영역	영역별 20여개
배분 이수교과	5개 영역	영역별 10~40여개	3학점

〈총 이수학점〉



2016학년도 경희대학교 정시모집 안내

경희대학교는 201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 가교단, 경영학과는 가나군 분원모집, 국제캠퍼스 나군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 전형요소를 긴소화함에 따라 정원 내 일반전형은 모두 수능 100%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두루 갖추고 한다. 수능 50%와 학영권 등 서류종합전형은 고등교육 수준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두루 갖춘다. 능력기반전형은 기초생활수료자와 자성수료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전형은 지원자격이 있다. 가. 군인전형: 정부로 정한 선발방법이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자연계도 영어 20%, 수학A 35%, 영어 35%, 혁신학과 2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국제캠퍼스에서는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50%, 수학A 35%, 영어 30%, 사회영구 15%를 반영한다.

도전방법의 중 한 영역(리더십이나 창의성, 협동, 창의성 등)을 선택해 수능 50%, 영어 50%를 반영해 수석교과와 기초생활수료자에게는 미만인 경우 지원을 가능하다. 단기영역에 가족전형은 별도의 지정과목은 없으며, 일문/사회/영어 3과목을 선택해 수능

노란건물, SPACE21, 대학구조개혁, PRIME

2015년 돌아보기

박기윤 기자 kyoont230@knu.ac.kr
최병현 기자 chbh1027@knu.ac.kr

#.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저물고 있다. 올해도 대학주보는 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통해 독자들을 찾아다녔다. 올해 기사 중 조회수 상위 20개에서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사는 5개로 지역사회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회수 8,434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1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성반점 간판 내린다' 기사도 역시 지역사회 기사였다. 이 외에도 후마 A교수 막말파문에 관련된 기사, '국제캠퍼스' 명칭의 유래에 관한 기사,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대자보' 등도 눈에 띈다. 조회수와 별개로, 올해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지던 SPACE21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또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대학구조개혁에서 우리 학교는 다행히도 A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공간문제, 경희의료원 전면플라자, 혜정박물관, 중앙일보 대학평가, PRIME사업, 캠퍼스 통합등이 있었다. 이에 우리신문은 2015년을 장식한 주제 10가지를 뽑아 다시 살펴봤다.

터 내 폐점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문제

올해 역시 학내 공간문제가 중요한 화두였다. 1학기 초에 서울캠퍼스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Task Force Team)는 대학본부 측에 정경대학의 낙후된 시설과 기자재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대학 학생회는 3월 22일 청운관 앞에서 '정경대학 공간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교 측은 요구를 받아들여, 여름 방학 기간에 정경대학 낙후시설 개·보수와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을 진행했다.

국제캠퍼스 공과대학은 자치공간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공과대학은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총 9개 학과에 학부 재학생 인원만 3,200명이 넘는 대규모 단과대학이지만 건물은 1980년에 지어진 공과대학관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인원이 증가하고 공간 활용이 힘들어지면서 2013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공간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른 단과대학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전자정보대학은 응용과학대학과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생명과학대학은 부족한 넓

〈2015년 조회수 TOP 20〉(2015.12.04. 오후7시)

순위	기사명	날짜	조회수
11	2015학년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A등급	2015.12.04	8,434
12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대자보'	2015.12.04	7,246
13	'퐁다우' 대학구조개혁 평가 A등급	2015.12.04	6,226
14	'경기도' 대학구조개혁 평가 A등급	2015.12.04	5,696
15	학교 측, 신설 제안으로 '국제캠퍼스' 확장	2015.12.04	3,938
16	QS세계대학 평가 A등급	2015.12.04	3,919
17	한의·간호대학 평가 A등급	2015.12.04	3,784
18	부적절 병행수업 평가 A등급	2015.12.04	3,510
19	O&P 학교 평가 A등급	2015.12.04	3,353
20	"수강생 평가 A등급"	2015.12.04	3,328



1 지난 5월 11일 문화복지센터가 개관했다. 개관 이전부터 색깔과 명칭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관 후에는 메르스, 방학 등 악재가 겹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여려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가 낙후된 시설과 기자재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측은 요구를 받아들여, 여름 방학을 맞아 정경대학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캠 공과대학 등 여라건물에서 노후화와 공간부족 문제가 제기돼기도 했다.



3 지난 8월 20일 김혜정 석좌교수가 혜정박물관 관장 직에서 직위해제됐다. 감사행정원(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김 교수는 횡령을 포함한 여러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 교수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취하했고, 감사원은 12월 중으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지난 8월 31일 우리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학교는 '자율감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SPACE21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SPACE21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총학측은 안전문제와 기차문제,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SPACE21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된 소통위원회에서 전반적인 SPACE21에 관한 방향을 계속 논의해나갈 전망이다.

노란건물

개관 이전부터 건물 디자인과 명칭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경희의료원 전면플라자가 5월 11일 개관했다. 총학생회는 공식 개관 당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와 디자인 변경 등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우리학교에 환원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과는 달리 전면플라자의 운영은 임대료를 제외하면 구성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희의료원 측은 전면플라자와 생협의 역할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장을 전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일부 입점업체에서 당초 약속했던 우리학교 구성원에 대한 할인 제도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전면플라자를 운영하는 GS 리테일 측 관계자는 "업주들에게 할인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을 여름 발발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여파와 구성원의 저조한 이용으로 문화복지센

이와 개미집 구조형태의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외국어대학관 소속 학생들은 동아리방을 함께 사용하고, 학과방, 강의실을 전전하기도 하는 등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으로 자치공간 문제에 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혜정박물관

지난 8월 20일 김혜정 석좌교수가 혜정박물관 관장 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된 감사행정원(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 교수가 976만 원을 횡령, 개인 소유 유물 30점을 교비로 구입, 기증한 유물 무단 반출,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교직원을 무단 동원했다는 등의 혐의를 밝혀 직위해제 제를 결정했다. 더불어 김 교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던 해좌전도가 입고 당시부터 훼손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혜정박물관을 사이에 두고 김 교수와 감사원 측의 공방이 점차 심화됐다. 김 교수의 주장은 '김 교수가 허위사실로 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박물관 내부문서를

무단 반출한 행위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러한 감사원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8월 감사 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덧붙여 "976만 원은 경희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박물관 운영자금과 무관한 전시회 행사비용으로, 지난해 3월 당시 직원이 임의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조로 수수한 것을 사후에 적발해 돌려내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박물관의 유물관리비용 등으로 사용됐을 뿐 사적 용도로 지출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9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1월 23일 취하했다. 감사원은 12월 중으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우리학교는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추진

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자율감축' 대상이 됐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학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각 대학별로 특색 있고 강점 있는 학과 중심으로 조직 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을 자율감축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특히 '학사관리' 항목에서 학생성적분포가 평가지표에 포함돼, 각 대학은 평가를 준비하면서 성적 평가에서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학점별 비율을 제한하는 등 학칙을 고쳐 학생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A등급을 받아 정원감축에 있어서 '자율감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학구조개혁은 총 3주기 중 이제 고작 1주기 평가가 끝난 상태다. 3년 뒤 있을 2주기 평가도 준비해야한다. 2주기, 3주기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본부는 "1주기 평가에서는 이미 수치화 된 정량지표를 개선하기 힘들었

다"며 "다가올 2주기 평가를 위해 정량지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CE21

SPACE21사업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다. 2007년 처음 발표된 계획에는 올해 완공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예산부족과 행정심판 등의 문제로 미뤄지다 결국 올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대운동장 부지에 건설 중인 서울캠 공공기숙사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행정심판으로 일정이 연�돼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과대학의 건설 또한 연�적으로 지연됐다.

착공 이후에는 공사 기간 중 학내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캠퍼스는 본격적인 공사 시작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보차도 분리와 건설 차량진입로 공사, 노천극장철거를 진행해 9월 완료했다. 국제캠퍼스는 신공학관 건축사업과 외국어대학 관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성원 간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미 구성원 간 논의를 마친 종합체육관의 공사가 먼저 시작됐고, 안전 펜스 등을 설치해 최소한

ME 사업… 다사다난했던 2015년 돌아보다

시 기준)

기사명	날짜	조회수
전부터 졸업 후에도 재수강·학점포기 기록 남는다	03.06	3,249
생회 존폐논란' 두고 대자보 갑론을박	04.20	3,174
주' 사장님이 차려주는 마지막 집밥	09.25	3,037
의 딸' 키섬과 함께, 즐거운 개강!	03.02	2,985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에 경희대역(가칭) 안…서천지구주민·관계당국 반대 입장	10.30	2,950
대학평가 결과… 우리학교 지난해 보다 20계단 하락한 295위	09.15	2,900
호·이과대학 건물 20일 착공	06.08	2,752
발언 후마 A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09.27	2,650
평가최우수,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05.25	2,587
대상 설문토대로 논의를 거쳐 A교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10.13	2,534

학장은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데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준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담당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총여학생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와 별도의 후마 주관 개방형 설문을 토대로 인사소위원회, 교육과정운영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마 행정실은 ‘교수자의 차별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항목을 강의평가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고, 지난 12월 3일 강의 평가 항목 중 ‘교수는 열린 마음으로 학생을 대했다.’라는 항목을 ‘교수는 성·인종·장애 등에 대한 차별이나 비하없이 강의를 진행했고,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했다.’로 변경하는 등 또 다른 A교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학내 반대여론 확산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검정교과서 체제로 편찬되고 있는 기존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2017학년도부터 국정교과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하고, 관련 세미나를 주최해 국정화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종합순위 11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학평가는 지난해와 달리 인문·사회·공학·자연·의학·예체능 중 4개 계열 이상을 갖춘 4년제 대학교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평가와 인문·사회·공학·자연 4개 계열에 대한 계열평가 두 가지로 진행됐다. 우리학교는 올해 새롭게 진행된 계열평가에서 인문계열 종합 10위, 사회계열 종합 6위, 자연과학계열 종합 9위를 기록했다. 공학계열은 재학생 대비 계열 학생 수 20% 이상 만 평가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평가에서 그간 구성원으로부터 개선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됐던 ‘교육여건 및 재정’ 부분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우리학교는 신설된 항목들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강의 규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외부 경력 교원 비율’, ‘기술사 수용률’은 기숙사 수용률이 27

에 있었던 프라임 사업에 관련된 회의록 공개’, ‘이후의 회의에 학교의 3주체(교수, 직원, 학생)가 참석’을 각각 요구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통적으로 ‘논의 과정 중 학생 대표의 참여 보장’과 ‘논의 과정의 상세한 내용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대학본부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PRIME 사업 대상이 선정되는 내년 3월 중순까지 논란은 계속될 예정이다.

캠퍼스 통합

우리학교는 지난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통합했다. 이로서 그간 법적 ‘분교’로 표시되었던 국제캠퍼스는 본교로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최근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입시정보의 ‘사실상 분교’ 표기와 캠퍼스 간 유사학과 다전공 불가와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불명확한 이원화 기준’과 함께 캠퍼스 학문단위를 나타낸다는 ‘명칭’에 관한 논란 또한 시간이 지남수록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과 주요 입시포털 사이트의 입시자료에서 8곳 중 6곳은 아직도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분리해 표시하고 있다. 이는 타교의 법적 분교들과 동일한 표기방식이라 자칫



6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배분이수교과 강의에서 A교수가 봉건적 성역할에 기반한 주장을 자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 파문이 일었다. 같은 사실은 해당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제보를 통해 전해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당시자인 A교수와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은 학생들에게 공개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해 일단락 됐다.

7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교내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우리학교 교수 116명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공동 발표했고, 사학과 교수 전원은 국정교과서 ‘집필거부’를 선언했다. 사학과 재학생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일반 학생들도 대자보를 통해 우려를 표명했고, SNS상에서도 많은 반대 움직임이나 태도가 나타났다.



8 ‘2015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 지난해보다 2계단 하락한 종합순위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까지 고정된 지표 위주로 투자를 해왔던 우리학교가 새로운 평가지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종합순위 집계에서 KAIST(카이스트)와 포스텍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순위가 지난해에 비해 하락한 것을 두고 구성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 A교수가 봉건적 성역할에 기반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해 파문이 일었다.

A교수는 140여 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에서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여자들은 집에서 애를 보지 않고 금테 안경 끼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여자들이며, 그 순간부터 그 애들 인생은 망한 거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남성성’이지 여성은 할 일은 아니다”와 같은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 사실은 해당 수업에서 불편함을 느낀 수강생들의 제보를 통해 전해졌다.

A교수의 발언은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연합뉴스, SBS, 허핑턴포스트, 헤럴드 경제 등에서 ‘서울 사립대 여교수 수업 중 여성 펜웨이 발언 논란’ 이란 제목의 기사로 다뤄졌고, 네이버의 의견으로는 ‘교수의 발언이 부적절하다’와, ‘수업의 맥락을 고려하면 부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에 후마 유정완 학장이 해당 강의 시작 전 15분간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유

9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 선정돼기 위해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타 대학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행보가 이어지자 총학은 대학본부에 소통을 요구하고 있다. PRIME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사업 선정 발표가 예정된 내년 초까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0 2012년 법적으로 양 캠퍼스가 하나의 학교로 통합됐지만 아직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점을 대학주보 지령 1600호를 맞아 짚어봤다. 이에 독자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내왔다.

입학을 고려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불명확한 이원화 기준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커리큘럼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공학’을 다루고 있지만 서울캠퍼스에 위치해 있어 취업관련 전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융합트랙’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기업에서 이공계열 취업 시 실질적인 ‘직무 역량’을 요구함에 따라 국제캠퍼스 내 전자공학 계열은 컴퓨터공학 등과 함께 단과대학 내 트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반면, 정보디스플레이학과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다.

영어학과는 ‘유사학과’와 얹혀 학문단위 구분이 바르지 못한 경우다. 무용학과는 국제캠퍼스로의 이전을 거부해 교내 81개 학과 중 유일하게 ‘단과대학이 없는’ 독립 학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응용과학대학과 이과대학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응용과학대학은 설립 초기에 국제캠퍼스 공학계열의 ‘기초과목’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순수·응용 커리큘럼에서 큰 차이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공사비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학본부 측은 양 캠퍼스 SPACE21 사업비를 약 1,750억 원으로 책정한 상태다. 하지만 이 중 500억 원이 기채로, 대학본부는 3년의 거치기간에는 매년 15억 원, 그 후 17년간은 매년 약 37억 6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리금균등상환이라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불충분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기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구체적인 상환방법 없는 기채신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교 측에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 총학생회와 대학본부가 건설사업 전반 논의할 ‘소통위원회’를 설치했고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한 소통위원회는 SPACE21 사업과 관련한 안전·편의·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논의 중이다.

천개의 공감 여교수 막말사태

서울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의 ‘천개의 공감: 현대인의 심리분석’ 강의에

시민교육, 시민의식 그리고 난민

전문가 칼럼 - 시민교육



양훈도
후마니타스
칼리지

즐겨보는 케이블 채널에서 아프리카 어린이 후원 광고가 방영될 때마다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수전 손택이 이미 오래 전에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타인의 고통’에 오히려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감상적인 이미지도 그렇거니와, 세계 유수의 구호단체들이 줄지어 같은 내용의 광고를 연달아 내보내는 탓이다. 차별성 전혀 없는 저광고들의 계재료는 얼마일까? 며칠 전 어느 인권 활동가로부터 구호 모금이 저들 단체의 주요한 수입원이라는 말을 듣고는 마음이 불편하다 못해 비통해졌다. 감성의 신자유주의.

マイ클 애플의 말마따나 “교육은 이 비극적인 시대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회적 비전과 길하게 연결돼 있다.” 그는 묻는다. 교육은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자신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 이 질문은 이미 ‘그렇다’ 혹은 ‘그럴 것이다’는 낙관을 강하게 암시한다. 서론에서부터 성공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슬쩍 딴첨을 피우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힐 뜻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먼저 이렇게 물어봐야 하지 않나? 사회는 교육을 바꿀 수 있을까? 지금 같은 한국 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를 논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지금 같은 한국교육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복잡한 심경으로 참석한 어느 시민 교육 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듣다가 낭패감과 준경심이라는 양가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참 오랜만이다. 교육 학자인 강연자의 문제의식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가’였다. 답을 구하기 위해 그는 먼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좋은 시민의식의 윤과를 그린다.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



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며 지역 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지니고 지역사회와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좋은 시민인 것이다.”

시비를 걸만한 대목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패감이 든 이유는 뻔하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에 ‘민주시민의 육성’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정말 민주시민이 길러지고 있는가? 일상의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나는 과연 저런 시민을 단 한 명이라도 교육할 자신이 있는가? 목표는 완벽할수록 아득해지는 법이다. 반면, 맹세코 반여(反語) 뉘앙스를 조금도 섞지 않고 말하거니와 강연자에게 존경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어찌 한 위로와 희망도 주지 못하는 교육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렇듯 진지하게, 집요하게 시민의식과 시민교육의 의미와 과제를 파고들어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람에 대한 지식이건, 사물과 사건에 대한 지식이건 제대로 된 읽은 자신 주변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 학생들의

발은 땅을 딛고 있지 않다. 시선 또한 세계를 바라보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밀어내기, 쫓아내기 교육-기계를 통과한 학생들 대다 수는 세계로 진출할 기회조차 갖지 못 한다. 세계도 잘 모르고, 지역은 더더욱 모르는, 이 ‘세계시민’도 ‘지역시민’도 아닌 ‘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세계시민’도 ‘지역시민’도 아닌 ‘시민’들을 어찌할 것인가?

에이란 쿠르디란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지난 9월초 터키 해변에서 숨진 세 살짜기 시리아 어린이 말이다. 시리아 ‘난민’ 문제를 단숨에 세계 여론의 초점으로 옮겨놓았던 이꼬마는 벌써 잊혀졌다. 11월13일 파리 테러의 영향도 크지만, 애초부터 에이란 쿠르디 역시 국제구호기관들의 아프리카 아동 후원 광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미지만 소비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두에 언급한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이 ‘난민’이라는 용어에 정색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애플은 ‘난민’이라는 용어가 이들의 익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국가 주도 살인과 공격 정책에 의해 강제로

쫓겨난 ‘공화국의 시민들’이라는 점을 은폐한다고 지적한다. ‘난민’은 원인이 되는 갈등을 ‘평화’하는 정치적 용어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시민의식을 제대로 기르고자 한다면, 시민을 난민으로 몰아붙이는 (국제)정치학의 메커니즘과 난민은 멀리 있지 않다는 점을 우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인류학자 조한혜정의 지적처럼, ‘난민-되기’를 실천하는 것이 암담한 미래에 대응하는 현명한 지름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난민-되기’에서 하이픈을 아예 빼든가 자기 자신이 난민임을 자각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한 길일 수 있다. 우리가 에이란 쿠르디처럼 재화(災禍)를 피해 고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처럼 짙주리는 형편은 면했을지 몰라도, 37분마다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내전 사망자 수자에 버금가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난민이라 불러 모자람이 없다. 애플이 강조해하지 않는 사랑과 돌봄과 연대의 노동을 일깨우는 일도, 일상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교육학자가 지향하는 지역사회형 시민 교육도, 난민-되기 혹은 난민이라는 자각부터 먼저 깨우치고 볼 일 아닌가.

▶1면에서 이어짐

장칼라스 재판에서 종교의 불관용을 목도한 볼테르 역시 『철학사전』에서 “자신의 의견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자기 형제를 박해하는 사람은 괴물”이라며 이성적 판단에 따른 관용을 주장했다.

이렇듯 근대에 탄생한 관용의 역사 기저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깊은 이해의 소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선지자들이 말한 관용이란 무조건적인 용서나 이해가 아닌 이성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서로에게 갖추어야 할 하나의 덕목이다. 볼테르와 함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공유했던 관용의 정신 밑바탕은 종교적 차원과 특정 계층이 베푸는 아량이 아닌 순전한 개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되었다.

관용이 개인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어떠한 관용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무제한적 관용과 무제한적 자유는 백퍼센트 일치하기 때문이다. 무제한의 관용이 구속을 넣는 모순을 그냥 볼 수 없어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공유했던 관용의 정신 밑바탕은 종교적 차원과 특정 계층이 베푸는 아량이 아닌 순전한 개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된다. 강자가 약자를 제지하려는 시도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는 소수민족이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받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만다.

딜레마에 봉착한 현대인들은 사회 악과 인류에 대한 범죄에까지 관용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진지한 검토를 시작한다. 20세기 철학자 칼 포페는

참여마당

권순학
(식품생명공학 2015)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이야기는 매학기마다 시민교육 활동으로 꾸준히 다뤄졌던 국내 교내 청소노동자의 처우와 고용개선 문제에 관련된 것이다. 우리학교 청소노동자는 각 건물별로 1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앙도서관과 국제학관을 담당하는 15명을 제외하면 모두 용역계약직이다. 용역과 정규직은 고용 불안정 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도서관처럼 교직원 식당처럼 되는 곳이 있는 반면 단과대학들의 경우 식비가 한 달에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도 많다. 월급에 있어서도 큰 차등이 존재한다. 정규직은 매년마다 희봉이 쌓이고 월차, 연차, 보험비용까지 모두 지원이 되는 반면, 용역계약직은 월급은 최저시급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 머무르는 데다, 월차쓰기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복지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지친 몸을 뉘워 휴게실만 해도 냉방과 통풍이 잘 안되고, 냉장고가 없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처음에는 다른 학교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학교에 건의하고자 했다. 또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는 왜 청소노동자 노조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했었다. 처음에는 내 생각대로 흘러가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은 20살 대학생에게 그리 녹록한 곳만은 아니었다. 이화여대에서는 집 주소까지 물었고 건국대에서는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조사에 응한 학교라고해서 다를 것은 없었다. 조사를 실시한 모든 학교가 용역업체를 쓰고 있었고 청소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련한 질문에서는 다들 짜기라도 한 듯 ‘학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연세대, 중앙대, 건국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인하대 등 여러 학교를 조사해보았지만 벤치마킹을 할 만한 학교는 없었고, 용역업체들은 전화를 곧바로 끊어버리고는 했다.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해 인식하고, 행동으로 나서야한다는 대학생의 책임감은 주인翁은 집으로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우리학교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계약직 노동자들을 직고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현장방문시간을 조율하기 위해 중앙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아뵈었을 때에 ‘노조가 설립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이다. 그 자리에서 청소노동자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저희는 그저 끌쑤시고만 다녔지, 결국은 이렇게 어른들이 해결해 주셨네요.” 그런데 이 말을 받아 아주머니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해주셨다.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찾아와서 학교에 건의도 해주고, 그덕에 팻말도 바꿔고 했어요. 우리를 생각해줘서 고맙기만 하지.”

이 말을 들으니 죄송하면서도, 문득 그게 대학생의 진짜 역할이자 책임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불합리한 점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것, 정치적 시선을 배제하고 문제를 인식하여 해결하기 위해서 부딪쳐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며 사회를 바꿀 힘은 없어도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에 던져지는 돌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우리 학교의 자회사 설립은 우리학교와 희망제작소가 MOU를 체결한 단계다. 국제캠퍼스의 노조는 조성된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꾸준한 관심은 필요할 것이다.

남녀 공감 심통 → 젠더역량강화 워크숍

학생지원처 여성과에서는 2015 고교교육정상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이 학생생활 적응력과 리더십을 향상하도록 돋고자 워크숍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제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리더십 향상	내용
일시 : 2015.12.22.(화) 13시~18시(식식포함)	- 자기개념의 형성 과정
장소 : 학생회관 1층 학생지원처 중세미나실	- 섹스 vs 젠더
대상 : 남·녀 학부 재학생 15명 내외	- 성인지 리더십이란?
[참가자]의 50%이상은 신입생(1학년)	- 여성 및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편견
강사 : 유정훈 [젠더실태향상교육원 원장]	- 성인지 리더십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
	- 인식의 한계 평가
	- 공감능력 향상시키기
	- 성평등 실천방안 공유하기

접수기간 : 2015.11.09.(월) ~ 12.18.(금)

신청방법 : 여학생과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

여학생과 홈페이지 : <http://web.knu.ac.kr/~wss0208/>

문의 : Tel. 02-961-0208 e-mail - khsa0043@knu.ac.kr



생활

6년간 회기동 화재 발생원인 1위는 ‘담배꽁초’

데이터 뉴스 - 회기동 화재 많은 곳은?

김규래 기자 rlarbfo41@knu.ac.kr

#. 지난 11월 13일, 우리신문은 회기동 인근의 ‘UCLA’ 매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보도한 바 있다. 화재의 위험은 사계절 도사리고 있지만, 특히 습도가 낮고 전열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겨울철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우리학교 주변의 화재 발생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회기동 일대의 화재발생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회기동 일대에서는 총 43번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 소방서의 ‘회기동 일대 화재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곳은 회기동 60번지로 식당가가 밀집해있는 장소였다. 전체적인 화재발생지는 광범위한 지역에 퍼져 있었지만, 식당가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은 보였다.

주로 식당가 화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은 전기나 가스로 인한 것이 아닌 ‘담배꽁초’로 인한 것이었다. 총 43번의 화재 중 11번이 담배 불씨로 발생했다. 이는 회기동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경향이다. 국민안전처 화재정보시스템의 2015년 동대문구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발화요인 1위는 전기적 요인, 2위는 음식조리였던 것과 대조된다.

화재원인 1위는 담배꽁초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동대문구 소방서 측은 “작은 담뱃불이 보이지는 않지만 열이 축적되다보면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장실이나 학교 쓰레기통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빈도가 높으니 흡연자는 담뱃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재는 많았지만 인명피해 부분에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고, 4명의 부상자만 발생했다. 부상자는 2012년 4월에 2명, 올해 8월 2명이었다. 큰 규모의 화재도 섞여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적은 수다.

화재의 월별 분포를 보면, 7월에 발생한 화재사건이 43건 중 6건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는 매달 대체로 비슷한 발생빈도를 보였지만, 1,2월과 7,8월의 화재사건이 미세하게나마 많은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이

기간에 피해 규모가 큰 화재가 주로 발생했다.

한편 화재 발생 후 소방서의 평균 출동시간은 신고 후 4분 이내였다. 가장 늦은 출동은 신고 후 7분 만에 이루어졌고, 가장 이른 출동은 신고 후 2분이었다. 실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해 화재가 순간적으로 확산되는 ‘플레이시오버’ 현상은 보통 5분 이내에 발생하므로 소방차량이 5분 안에 도착하는 것은 인명·재산피해에 직결된다. 실제로 5분 이상 걸려 현장에 도착한 화재는 대체로 진압시간이 오래 걸렸고, 재산피해 또한 상당했다.

가장 많은 재산피해를 남긴 화재는 2013년 1월 31일 새벽 2시53분에 발생했다. 신고 5분 후에 도착한 소방대에 의해 화재는 8분 만에 진화됐으며, 소방서 추산 806만 8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두 번째로 큰 화재 또한 같은 해에 발생했다. 2013년 7월 3일 새벽 1시 56분에 발생했으며 이 역시 신고 5분 후에 도착한 소방대는 진화에 무려 21분 5초를 소요했다. 그리고 소방서 추산 607만 1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회기동 화재 한 건당 평균 재산피해가 75만 1천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피해였다.

두 화재는 규모가 커 만큼 많은 부분이 소실된 탓에 화재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반면 출동시간이 3분 이내였던 화재사건을 보면 평균 재산피해가 40만 5천원이었다. 평균적으로 화재진압에 소요된 시간 또한 2분 25초로 소규모 화재가 주를 이루었다. 빠른 신고가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고 적은 피해로 진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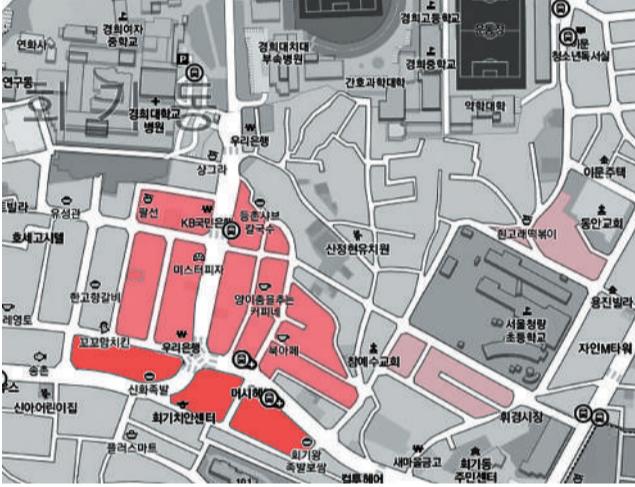
청량리119 안전센터 측은 “골목길 불법 주차가 출동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라며 “출동하던 대원들이 차에서 내려 길을 확보한 뒤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빠른 출동을 위해 불법주차는 자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4건이었다. 2011년에 두 번, 2013년에 두 번 발생했고, 최근에는 화재가 없었다. 우리학교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평균 재산피해는 177만 5천원이었고, 화재원인으로는 전선단락 2건, 담배꽁초 1건, 미상이 1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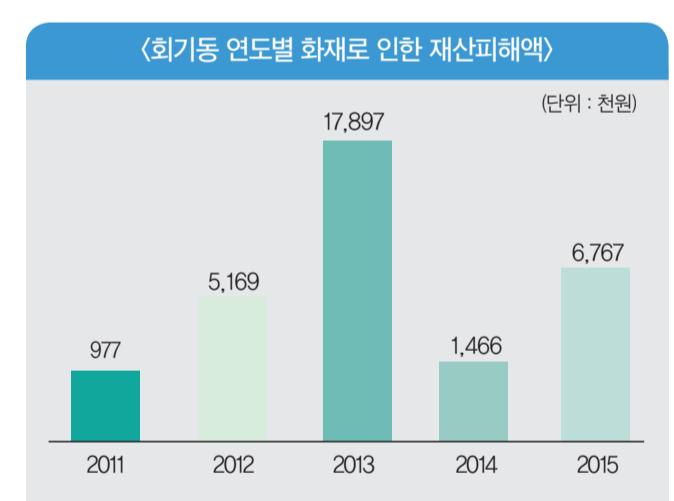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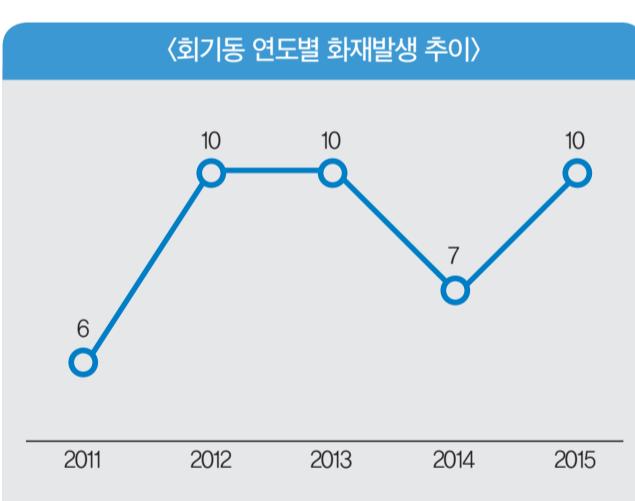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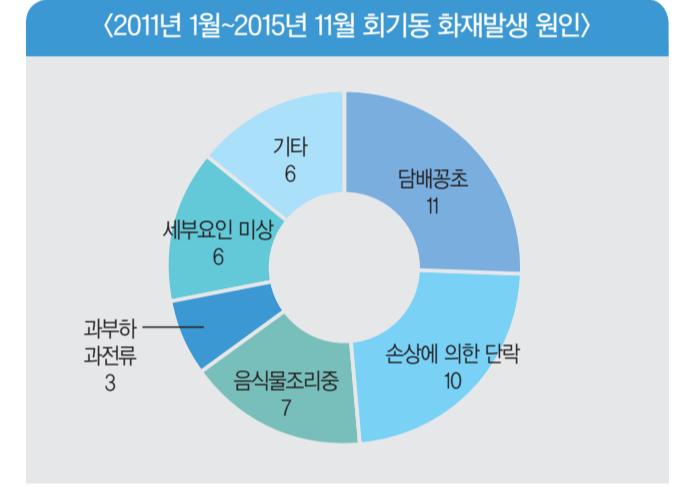
*서천동 일대의 화재발생 현황에 대한 종합·분석 기사는 방학 기간 중 대학주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11월 3일 회기동 UCLA 음식점 화재발생 사진



▲ 붉은색으로 짙게 표시된 곳일수록 화재발생 건수가 많다



201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 2016-1학기 우정장학을 수혜받으려면 “2016-1학기 국가장학 1차 신청”을 원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2015. 11. 24(화) ~ 12. 16(수) 18시
교내장학 신청기간: 2015. 12. 1(금) ~ 12. 31(토)

●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2015. 12. 1(화) ~ 12. 31(토)
- 신청대상: 정부학기 학부 재학생 중

* 1. 기존 교내장학(부수/문화/경희기자/고시 등)-교외 계속장학생도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금 신청서와 차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3. 기관별로 충방사업 제출 상황 * 단 우정장학 수혜대학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 (후신학자는 장학지급 불가).

● 신청방법

구분	내용
신청방법	

증명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장학/용지신청]→‘교내장학금 신청’

신청방법

1. 2016-1학기 우정장학, 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 등의 장학 신청을 “201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통합함.

2. 장학금 신청서와 차기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음.

3. 기관별로 충방사업 제출 상황 * 단 우정장학 수혜대학 학생은 국가장학 1차 신청을 반드시 필해야 함.

후 신청여부를 결정할 것 (후신학자는 장학지급 불가).

4. 신청방법

구 분

- 해당자 및 제출서류

소속대학 행정실

- 고교/대학신규: 고시 학부증명서 1부

장애인복지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증명서